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동향

## 정보보호자격제도 확 달라졌다

### 필기 및 실기시험 일정 개선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KISA)이 정보보호전문가(SIS) 자격시험 제도를 개선하고, 취득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향후 CISA·CISSP 등 외국 정보보호 자격증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끌어 올려 SIS에 대한 수요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이버 침해사고,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피해 증가로 정보보호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SIS 자격제도는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보호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국가공인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지금까지 SIS 시험제도는 필기 및 실기 시험을 같은 날 시행함으로써, 필기시험 합격 후 약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선된 제도에서는 필기와 실기시험 일정을 분리함으로써 실기시험 응시까지 걸리는 시간을 3개월로 단축시켰다.

또한 시험난이도에 있어서도 SIS 1급은 정보보호 관리자 양성, SIS 2급은 정보보호 공통 소양지식 평가라는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난이도를 조정해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자격증을 취득한 대학생들에게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원사에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KISA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상반기 필기시험 지원자는 오는 5월 9일까지 홈페이지(www.sistest.kr)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 조진현 선임연구원, APECTEL SPSG 간사 선임

### 회원국 이해관계 조정 및 협력창구 역할

KISA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대응지원팀 조진현 선임연구원(사진)이 지난 3월 23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37차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그룹회의(APECTEL: APEC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에서 '보안번영 운영그룹'의 간사로 선임됐다. 보안번영 운영그룹(SPSG: Security and Prosperity Steering Group)은 정보통신 실무그룹 내 운영그룹 중 하나로, 이곳에서는 정보보호 및 재난복구 분야를 중심으로 침해사고 대응,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망 구축, 사이버 범죄 예방, 정보기술의 악의적 활용 예방, 전자인증, 물리적 긴급사항 대비 및 대응 등 APEC 차원의 사이버 보안과 물리적 보안 등 정보보호 전반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그룹 간사의 임기는 2년이며, 이 기간 동안 21개 APEC 회원국의 이해관계 조정과 운영그룹 회의의 진행을 비롯해 APEC SPSG를 대표해 ITU, OECD 등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창구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조 선임연구원은 지난 2년간 SPSG의 부간사로 활동하며, APEC 프로젝트 'APEC 국경 간 환경 하에서의 협력 대응 가이드라인' 및 '민관 협력기반 협력 대응 관련 모범사례'를 주도적으로 진행해 완료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왔던 것이 이번 간사선임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번에 SPSG 그룹간사로 선임된 대응지원팀 조진현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생하는 침해사고는 한 국가나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APEC 회원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침해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대응지원팀  
조진현 선임연구원

## 아·태 지역 정보보호 문화운동 공동 전개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 보호 활동 아·태 지역에 전파

KISA가 지난 3월 23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37차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그룹회의(APECTE: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에서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정보보호 인식제고 프로젝트(Security Awareness Raising Project)'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최근 국제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고 등이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을 사용하는 일반인, 기업, 정부 등 이용자 스스로 정보보호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회원국이 깊이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시행되는 것으로, 아·태 지역의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국의 인터넷 이용자 보호활동 공유,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이번 37차 회의에서 제안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오는 10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될 제38차 정보통신그룹회의에서 정보보호 교육, 학술행사, 정보보호 표어·포스터 공모전,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 지금까지 KISA가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던 국내의 다양한 인터넷 이용자 인식제고 활동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 인터넷 이용자 정보보호 위한 민관 협력 가속

KISA, 다음커뮤니케이션, NHN과 이용자 보호 위한 협약 체결

KISA가 지난달 18일 aT센터에서 국내 주요 포털기업인 다음커뮤니케이션, NHN과 함께 3개 기관 간 인터넷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에 대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보호대책 마련과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에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 '신뢰성 있는 정보전달',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공동 캠페인 전개'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최근 한 인터넷 쇼핑몰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후 개인정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국내 최대 포털 기업 두 곳과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번 협약과 관련해 KISA 황중연 원장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이로 인한 피해사태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향후, u-IT 서비스 발전과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정보보호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이용자가 많은 주요 포털 기업들이 건전한 인터넷 문화정착을 위해 정부와 이용자 간의 채널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KISA의 한 관계자는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정착에 있어, 규제보다는 이용자 스스로 PC와 개인정보를 지키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KISA에서는 지속적인 정보보호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해 왔다"고 밝히고, "전국 순회 강연회와 정보보호 만화 연재, 지하철 공익 캠페인과 같은 정보보호 캠페인과 교육 등을 통해 정보보호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KISA, 다음커뮤니케이션, NHN간 업무협약 체결